

- 또한,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,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

※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 감소('19년 77.5% → '22년 54.0%), 기초 학력 미달 비율 증가('19년 4.0% → '22년 8.0%)

※ △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(C등급)으로 인식(한국교총, '21)

△ 중학교 3학년 학생(2,405명) 문해력 진단에서 문해력 미달 비율 27%, 초등학생의 어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을 11%로 진단(EBS, '20)

- 디지털 매체가 읽기의 대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디지털 매체 읽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반영한 독서교육이 필요

※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고, 학생 스스로 교육적 경험도 부족하다고 인식(OECD, '21)

□ 학교도서관·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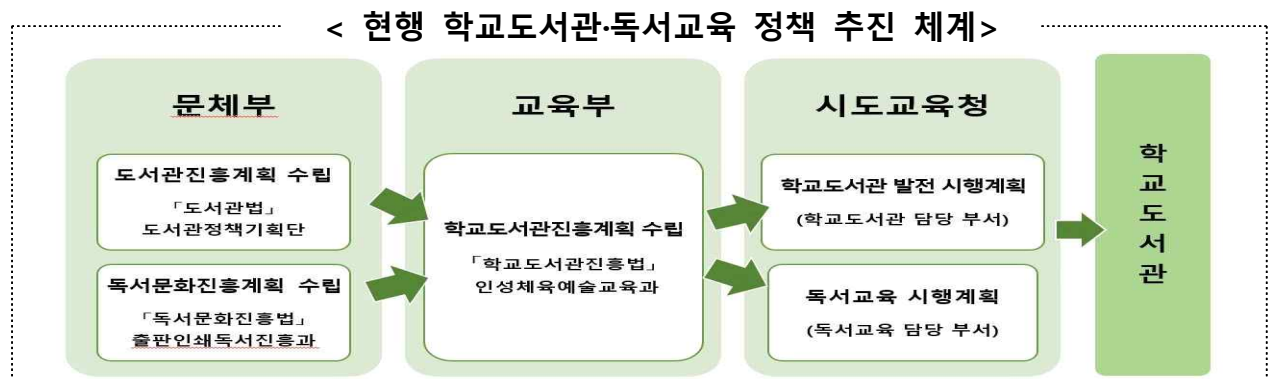
- '08년 「학교도서관진흥법」이 제정된 이후,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교수·학습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필요

※ 학교도서관은 '장서의 소장'에서 '정보 접근'을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 필요

- 해외에서는 '학교도서관 평가'를 교육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중이나,

- 국내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를 통해 물적자원 및 이용률 등의 통계 중심의 현황 파악에 머물고 있는 실정

- 학교도서관·독서교육을 둘러싼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, 관련 정책의 통합적·효율적 추진이 미흡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발생



※ '23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독서교육 계획을 통합 수립한 교육청은 경기, 인천 2곳에 불과